

#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주요의제 가능성 높아

### 내일 남북회담... 姜시장 건의에 정부 긍정적 답변

### 8월 열릴 '청소년 리더십' 北 여자축구팀 초청기로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이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대립상황을 완화하는 도구로 스포츠 외교가 활용되고 있는데다 다 성인 스포츠 대회에 비해 청소년(대학생)이 참가하는 U대회는 정치적 색깔도 덜기 때문이다.

강준태 광주시장은 10일 간부회의

에서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남북회담이 개최되면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지난주에도 통일부장관에게 다시 연락해 남북대화가 재개됐으니, U대회 남북단일팀을 의제화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에 이어 U대회 남북단일팀을 적극 다루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내용(U대회 남북단일팀)을 문체부에서도 통일부에 건의했으며, UN과 북한당국도 광주가 남북단일팀 구성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U대회 남북단일팀 추진을 목표로 오는 8월 광주에서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UN-OSDP) 주최로 열리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YLP)'에 북한 여자청소년 축구팀을 초청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윌프리드 램케

UN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다음달 초 북한을 방문해 북한 여자축구팀의 YLP 참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램케 보좌관은 지난 2011년 남북 단일 탁구팀을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램케 보좌관은 지난 201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 탁구 친선대회인 '피스 앤드 스포츠컵'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실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이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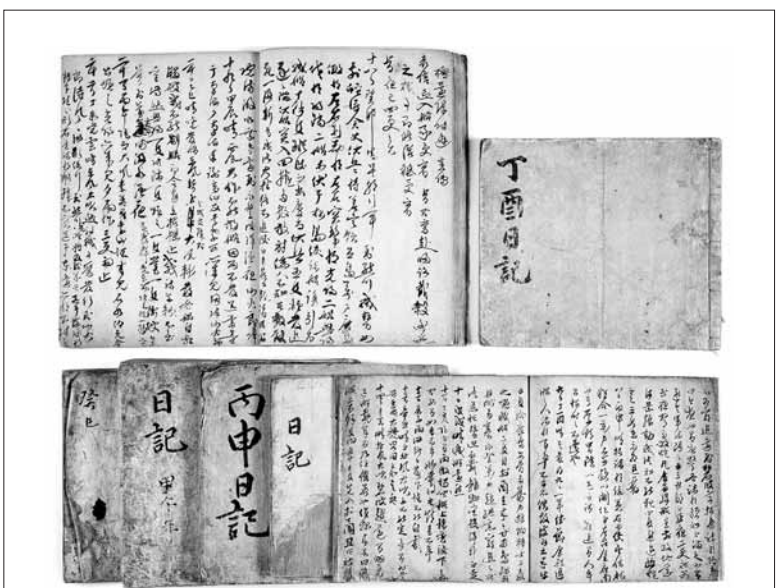
'YLP'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청소년 리더들을 초청, 스포츠를 통해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르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행사로,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

까지 13일 동안 광주에서 열린다.

강 시장은 이어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해야 할 아티팩트를 설정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세계아리랑축제에 평양아리랑, 중국의 조선족 아리랑, 한민족 아리랑도 여건이 맞으면 불러야 하고, 특히 북한 아리랑팀을 초청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가 지난 2008년 까지 평양 사료공장을 건립하는 데 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의 도시 광주시 차원에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kz@kwangju.co.kr



## '난중일기' 세계기록유산 등재 눈앞

문화재청은 이같은 통보가 등재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운동기록물은 당시 소위원회에서 보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난중일기를 비롯해 50여 개 국 84점의 기록유산에 대한 등재 여부를 심사하고, 세계기록유산 사업 현황과 홍보·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심사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된 14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96개국 238건이 등재돼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5월25일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훈민정음 해례본'(1997년 등재) 등 9건을 등재하는 등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세계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 제2컨벤션센터 호남 최대 공연시설

### 다목적홀 3000석 규모... 올 연말까지 50.5% 선예약

광주 제2컨벤션센터에 호남 최대 규모인 3000석을 갖춘 대형 공연시설이 선보인다.

광주시는 "11일 개관하는 광주 제2컨벤션센터 내 메인시설인 다목적홀은 3000석 규모로 최첨단 방송,

음향, 조명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다목적홀의 3000석 중 1010석은 자동 개·폐식 의자이며, 의자가 필요없는 대규모 콘서트 때에는 뒷벽으로 모든 의자가 들어가게 된다. 현재까지 지역 최대 공

연시설로는 1800석 규모의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이 애용됐다.

다목적홀 외에 중·소회의실 19곳에도 최고급 소음차단 시설(2중 구조 벽면 흡음재)을 설치해 차음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남파화장실(26곳) 대비 여자화장실(52곳) 비율을 1대 2로 하여 여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건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지난해 10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시설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개관도 하기 전부터 올 하반기(6~12월) 204일 중 103일의 대관이 마감돼 가동 예약률이 50.5%를 넘어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30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은 대규모 회의뿐만 아니

라 실내 집회, 공연 등을 하기에 손색이 없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한다"면서 "각종 국제 대회 유치시 컨벤션시설 부족이 걸림돌이 됐는데,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총 560억원(국비 280억원, 시비 280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한 뒤 9개월여만에 완공된 제2컨벤션센터는 전체면적 1만850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박진표기자kz@kwangju.co.kr

##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 10명 중 3명 외국인

### 10년새 2배 늘어... 中·美·베트남 順

### 갈등 최소화할 균형잡힌 정책 필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처음 돌파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외국인 셈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3%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었고,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에 체류 외국인 수가 106만6000여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체류 외국인은 국적별(4월말 148만6367명일 당시 기준)로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49.9%)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일 광주 북구 양산동 광주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에서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베트남 전통모자를 들고 전통 춤 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체류 외국인 규모 확대에 외국인 혐오주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할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은 9월 현재 150만1761명을 기록, 150만명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2003년 체류 외국인이 67만 8887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배

늘어 미국(9.3%), 베트남(8.1%), 일본·필리핀·타이(각각 약 3%), 우즈베키스탄(2.5%), 인도네시아(2.3%), 몽골(1.8%) 등이다.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7만9516명이다. 불법체류자는 2004~2008년 20만명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에 17만명 안팎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체류자의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30~39세 25%, 40~49세 19%, 50~59세

15%, 60세 이상 9%, 9세 이하 4% 등이었다.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는 14만938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배우자 수는 지난 2009년 12만5087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14만 1654명, 2011년 14만4681명, 2012년 14만84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필뉴스

## "다문화전당 예술감독 위촉 철회하라"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예술감독 위촉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등 21개 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광주 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족예술인 총연합'은 1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최근 위촉된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이 아시아 문화개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제대로 된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계획을 내놓지 못했고,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한계를 드러냈다"며 "전시 예술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문화부가 신임 김성희 공연예술감독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문화전당 개관과 관련, 부분 개관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문화전당 개관·운영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지난 4일 전시, 공연예술 감독을 각각 선임했다. /\*윤영기기자 yunfoot@kwangju.co.kr

###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거주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주,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시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기타서류: 통장사본 (본인 명의로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2012.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식: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민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영광군향우회가족중 광주시민은 향우장학회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며입니다

###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 알레르기성 비염

### 축농증 코피 해결

### 비만클리닉

한의원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 주자왕궁 ● 고려주자정  
대한생명 ●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80130-공-2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 오천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 한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